

SM 합동공연 취소, 80만 카시오페아 '불매운동'

최보란 · 입력 2009. 8. 13. 16:23 · 수정 2009. 8. 13. 16:23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최보란 인턴기자]

SM Ent. 불매운동 안내

안녕하세요, 카시오페아 여러분.

2009년 8월 16일 예정되었던 SM TOWN LIVE '09가 SM의 일방적인 무기한 연기로 사실상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많은 팬 여러분들의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가처분 신청을 함과 동시에 SM TOWN LIVE '09가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SM Ent. 측에서는 세 멤버의 가처분 신청(전속계약 효력 정지)과 상관없이 공연을 단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동방신기도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출연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SM Ent. 측은 '동방신기 소송 문제로 이 상태로는 소속 가수 간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는 이유로 공연 일주일 전 돌연 이번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SM Ent.는 ARTIST를 좋아하는 팬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제품의 퀄리티나 내용보다는 다수의 제품의 출시에 치중하고 유사한 콘텐츠를 반복 사용하여 출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위 사항 및 기타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를 무시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해 왔습니다. SM Ent. 는 기획자이기 이전에 생산자로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그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비자는 소비 거부를 행할 수 있고 책임 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방신기의 80만 팬클럽 카시오페아가 최근 '노예 계약' 파문으로 갈등을 빚은 소속사에 대해 강도 높은 '응징'에 나섰다.

12일 동방신기 팬페이지에는 카시오페아 회원들이 작성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불매운동 전단이 올라왔다.

장기 전속계약과 불공정한 수익 배분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예정된 합동 공연을 취소한 것이 화근이 됐다.

팬들은 "8월 16일로 예정됐던 'SM 타운 라이브 09'의 일방적인 무기한 연기로 사실상 공연이 취소됐다"며 "팬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제품의 질이나 내용보다는 다수의 제품 출시에 치중하고 유사 콘텐츠를 반복 출시하는 등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소비자는 소비거부를 행할 수 있고 책임 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선동했다.

지난 7일 SM은 "동방신기 멤버 3인이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태에서 취지에 맞는 양질의 공연을 선사할 수 없다"며 공연 잠정 연기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팬들은 "당일 선보일 이벤트 및 응원 등에 투입된 비용과 시간", "지방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준비했던 차량 대절 비용", "공연취소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 항의 글을 쏟아냈다.

SM은 공연 취소와 관련해 전액환불 방침을 밝혔지만 팬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팬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 멤버의 가처분 신청(전속계약 효력 정지) 당시 공연 취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SM측이 그것과 상관없이 공연을 단행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동방신기 역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연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결국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단에는 "소비자에 대한 처우 개선,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부당 계약 조항 시정 두 가지 요건이 이행될 때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전단은 해외 팬들을 위해 영문으로도 제작됐다.

불매운동은 SM에서 발매됐거나 발매 예정인 앨범과 화보, DVD 등 라이선스를 포함한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아울러 벨소리와 컬러링 등 음원서비스, SM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등도 해당된다.

이밖에도 SM 불공정 계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신문광고를 위한 모금운동도 벌이고 있다. 일부 팬들은 "집단 행동은 자칫 화를 더 키울 수 있다" "소속사와의 협의가 우선된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펼치기도 했다.

모바일로 보는 스타뉴스 "372 누르고 NATE/magic@/ez-i"

orchid613@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제보 및 보도자료 star@mtstarnews.com <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보란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